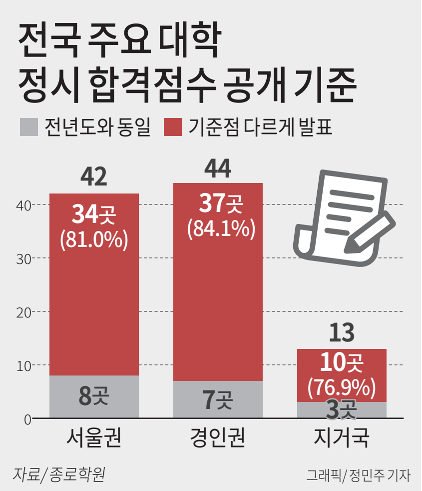
주요대 82%, 합격점 공개기준 변경… 수험생 정시예측 흔들

주요 4년제 점수 공개기준 달라져
대학·학과 간 점수 비교 어려워져
불수능, 사탐런, 의대정원 변화 등
변수 많아 올해 정시예측 '최고난도'

전국 주요 4년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이 대폭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정시 전략 수립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 간 공개 방식이 제각각으로 달라지며 기존 예측 방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은 전국 주요 4년제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81.8%)이 지난해와 다른 방식으로 정시 합격점수를 발표해, 최근 어려운 수능 출제 기조 속에서 정시 합격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대교협 '어디가' 발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자료/종로학원 그래픽/정민주 기자

2024학년도 이전까지 대부분 대학은 학과별 국어·수학·탐구 합산 평균 백분위 70%컷을 기준으로 합격선을 공개해왔으며, 수험생들도 이를 바탕으로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대 모집이 크게 확대된 2025학년도에는 99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자체 환산점수만 공개했고, 72개 대학은 각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하는 등 발표 기준이 전년과 달라졌다.

이에 따라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 점수 변화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고, 대학 간·학과 간 상대적 수준 비교 역시 매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과목별로 서로 다른 학생의 커트라인 점수를 제시한 대학이 많아 실제 합격생의 국·수·탐 3과목 합산 커트라인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42개 대학 중 34개 대학(81.0%)이 2024학년도와 다른 방식으로 발표했으며, 이 중 6개 대학(14.3%)은 자체 환산점수만 공개, 28개 대학(66.7%)은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했다. 기존 방식인 국·수·탐 합산 평균 백분위 점수를 유지한 대학은 8개교(19.0%)에 불과했다.

경인권 44개 대학 중 37개 대학(84.1%)이 기준을 변경했고, 거점 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13개 대학 중 10개교(76.9%)도 직전년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도 발표 기준이 제각각이다. 서울대는 자체 환산점수로만 공개했고, 연세대는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공개했으며, 고려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수·탐 합산 평균 점수로 공개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는 의대 모집정원이 다시 대폭 줄고, '사탐런' 현상과 영어 절대평가 난도 상승 등이 더해져 정시 예측이 한층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확대되며 합격점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개 기준이 달라져 정확한 변화 파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어려워진 수능,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변화, 대학별 합격점수 공개방식 변경이 얽히며 정시 예측 난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는 "통합수능 도입 이후인 2022~2024학년도는 발표 기준이 대체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기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2025학년도 자료는 기존과 다른 발표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 "대교협 어디가뿐 아니라 대학별 설명회,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까지 정밀하게 확인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공개… 자족도시 전환

향후 20년간 도시발전 방향 발표
주거도시 벗어날 3대 성장축 제시

고양시가 향후 20년간 도시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의 뼈대를 공개하며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시는 21일 민방위교육장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고 '미래도시 고양'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동환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서울 배후 기능에 머물렀다"며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 교통,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먼저 '도시의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을 통해 3대 성장축을 제시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첨단산업벨트 ▲일산신도시와 창릉신도시를 연결하는 활력복합벨트 ▲도심과 자연을 잇는 에코산업벨트가 핵심이다.

또한 에코산업벨트와 관련해 "하천·녹지·산림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개의 새로운 호수공원과 2개 이상의 저류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1인당 녹지 면적을 10.5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에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 방향이 제시됐다. 시는 2040년까지 창의인재 양성, 산업·주거 순환형 도로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지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일자리와 세수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고양의 미래상을 '미래가 있는 경제혁신도시, 고양 노믹스'로 규정하고, 공간 구조를 2도심·4부도심·6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일산신도시와 창릉신도시는 공동 도심축으로 설정됐으며,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와 대곡 등이 부도심으로 자리 잡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성동광진 '별빛런', 학생·교사 함께 달린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러닝크루 운영
10개 학교·11개 팀 선정, 193명 참여

2025 성동광진 러닝크루 별빛런(RUN) 발대식 모습.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산하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금연)은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과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러닝크루 별빛런(RUN)'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별빛런(RUN)'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상징하는 '별빛(星光)'과 달리기 'RUN'을 결합한 명칭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달리며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와 건강 지표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달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고,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모두가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0개 학교, 11개 팀이 선정됐으며 총 193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다. 각 팀은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방과후 및 주말에 매주 1회 이상 크루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10월 31일 광희중학교에서는 런더풀(RUNderful) 대표 인플루언서 안정은 러닝전도사를 초청해 '2025 성동광진 러닝크루 별빛런(RUN) 발대식 및 러닝 원데이클래스'를 열었다. 이날 190여 명의 학생과 교사는 러닝 기본자세와 주법, 안전 수칙인 런티켓, 부상 예방 스트레칭 등을 배우고 실제 러닝크루 활동을 체험했다.

광희중학교 이예신 교사는 "교사와 학생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며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며 "체력 증진은 물론 마음의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수고등학교 이민혁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금연 교육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러닝크루 활동에 참여해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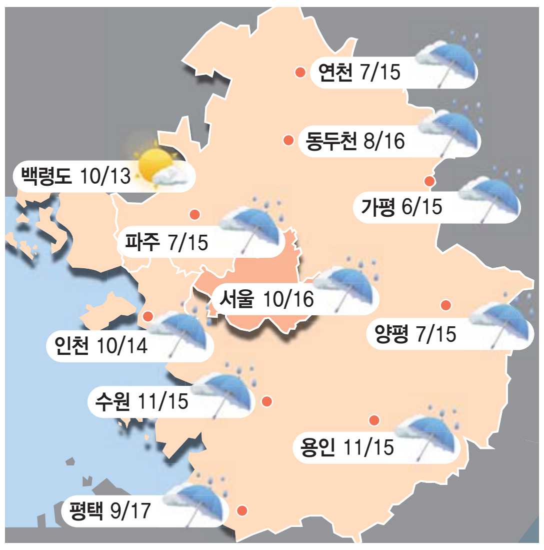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21 | 해짐 / 17:16

11월 24일(月)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10 ~ 1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사총협 회장에 전민현 인제대 총장 선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6대 회장 선출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 이하 사총협)는 지난 21일 더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총협 제26대 회장으로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을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년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총장(준회원 3개교)으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로 사립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해사립대학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수월성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민현 신임 회장은 2019년 인제대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2023년 연임해 인제대 제9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사총협 수석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위원, 인제대 BNIT융합대학 초대학장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과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전 신임 회장은 "사립대학이 존폐의 기로에서 있는 상황에서 회원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아젠다뿐만 아니라, 대학 규모에 따른 맞춤형 아젠다를 개발해 회원대학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사진 뉴시스

▲日, 내달 초 '일본판 DOGE' 조직 신설… 재정 구조개혁 시동
▲트럼프, '상극' 맘다니에 "철학 다르지만 목표 같아…'강한 뉴욕'"
▲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검토
▲"국경 강제 변경 안돼"…유럽, 트럼프 '우크라 평화안'에 우려 표명
▲영국 한류팬들과 어우러진 한국문화…'한류콘 2025' 런던서 성료
▲中,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유엔 승인 없이 군사 행동 가능" 위협